

+ 강민수 · 방송기술저널 기자

KOBA2010 방송기술의 미래를 만나다

6월 15일 오전 9시. 다시 찾아온 방송기술인들의 축제

제20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2010 : 20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가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는 방송의 미래(Culture of Media, Future of Broadcasting)'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KOBA2010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 주최하며, 29개국 636개의 방송·음향·조명업체가 대거 참가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방송·영상·음향·조명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 영화 '아바타'의 열풍과 함께 몰아친 3D 영상 관련 콘텐츠 및 장비들이 대거 전시돼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외에도 UHDTV, IPTV, Mobile TV 등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최첨단 방송통신융합기술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향 산업의 중심이 된 Pro-Audio의 Line-array Speaker, Amp, Mixer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th Dynamic Blaster KOBA'를 선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방송통신융합, 방송정책, 실감방송, 콘텐츠의 4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20개 세션, 80여개의 세부 컨퍼런스 및 토론회가 열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류했다. 이외에도 한국음향학회와 한국음향예술인협회에서는 음향전문기술 및 실전노하우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세미나가 실시됐다.

KOBA 2010



6월 15일 오전 11시. KOBA2010 개막

개막행사가 15일 오전 11시 COEX 전시장 C홀 입구에서 방송·통신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OBA2010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전병헌 위원, 지식경제부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한국방송협회 김인규 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재명 회장, 한국이앤엑스 김충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테이프 커팅에 이어 전시회 현황을 보고 받은 VIP들은 곧이어 주최측의 안내에 따라 전시장의 주요 부스들을 순회하며 다양한 방송기술들을 관람했다.





6월 15일 오후 12시. KOBA2010 개막축하 오찬

15일 오후 COEX 장보고홀에서 열린 개막축하 오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해숙 의원을 비롯한 여러 방송·통신계 인사들과 관련학계 교수, 전시회 출품업체 대표들이 함께 해 많은 정보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방송협회 김인규 회장은 “창의적인 발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송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이 KOBA의 20주년을 있게 했다”며, “앞으로 KOBA가 세계 최고의 방송기술 전람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문방위 전해숙 의원은 “해외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첨단 방송기술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어서 놀랍다”며, “문방위 소속 의원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남겼다.

한편, 이 날 저녁에는 KOBA의 20돌을 맞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마련한 기념만찬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현 회장을 포함해서 많은 전현직 방송기술인들이 참석하여 끈끈한 동료의 정을 나누었다.

6월 15일.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가 열린 첫날, 미처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참석자들은 뒤늦게 현장에서 등록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미리 준비한 강의자료가 모두 동나는 등 미래의 방송환경과 기술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컨퍼런스 첫날은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유통’, ‘방송의 미래전략’, ‘3DTV개요’, ‘Tapeless 제작시스템’ 등의 세션들이 개설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317호에서 열린 ‘방송정책’ 세션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미래와 전망’ 및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방송미래 전략’이라는 주제의 Keynote가 있었으며, 327호에서 열린 ‘Tapeless 제작시스템’ 세션에서는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 제작환경 디지털화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총 20개 세션으로 80여개의 강자가 마련됐으며, ‘컨버전스’, ‘방송정책’, ‘실감방송’, ‘콘텐츠’의 4가지 주제를 비롯해 최신기술이 실제 방송에 적용된 구체적 사례들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루었다. 특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방송주파수 정책’, ‘국산 방송장비 확산방안’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돼 방송·통신융합의 거센 돌풍이 이는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6월 15일 오후 3시. 정책토론회 “방송용 주파수 정책, 이대로 좋은가?”

15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7호에서는 ‘방송주파수 활용’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SBS 라디오 기술팀 박성규 부장(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송 규격을 사용하는 미국도 700MHz 주파수 대역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회사로 경매된 후에야 모바일 방송, 3DTV, UHDTV 등을 제공할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지상파가 공공서비스로써 새로운 방통융합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 때, 정부가 나서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반납과 경매를 추진하는 것은 빈부에 따른 문화적 차별과 정보격차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규 부장은 이어 “이동통신이 초기의 음성통화 서비스로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듯이, Mobile TV, 3DTV 등도 방송 진화의 끝은 아닐 것”이라며, “끊임없이 진화할 방송서비스에 대비해서 700MHz 대역을 차세대 무료 보편적 지상파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박사는 “수신료를 지불하는 시청자들에게 HD방송만으로 디지털 전환의 장점을 호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유료매체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방송 역시 다채널 전략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박성규 부장의 주장을 지지했다.

KOBA2010 개최를 기념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 최철호 KBS 기획팀장, 김성근 MBC 부국장, 성희용 SBS 정책팀장, 김철성 KBS RF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방송용 주파수 정책에 관해 뜨거운 논의를 펼쳤다.



6월 16일. 어느새 성큼 다가온 3DTV 세상

KOBA2010의 키워드는 단연 3DTV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장비 제조업체들까지 다양한 3D 콘텐츠와 장비들을 직접 시연하면서 많은 참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KBS의 경우, 자체 제작한 양안식 3D 카메라와 그 카메라로 촬영한 3D 콘텐츠를 5.1ch의 실감나는 음향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부스에 설치된 3D 카메라가 관람객들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3DTV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기해했다.

MBC는 자체 3D 기술로 제작한 “음악중심”, “라라라”, “뽀빠이”와 기존 2D 프로그램을 3D로 변환한 “아마존의 눈물”, “황하” 등의 콘텐츠를 상영하였다. 그리고,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MC들과 참관객을 3D 영상으로 합성하고 그 화면을 사진으로 출력해주는 이벤트를 열어, 많은 젊은이들이 부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도 연출됐다. SBS는 2010 남아공월드컵 주관방송사답게 축구경기를 3D 멀티비전으로 현장중계해서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부 관람객들은 3D로 중계되는 축구경기에 푹 빠져 한참동안이나 자리를 떠나지 않기도 했다.



한편, 많은 기업체들이 최첨단의 3D 영상 제작장비를 선보였는데, 소형화된 3D 카메라와 초고속 2D/3D 컨버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고성능 3D 녹화/편집/송출/상영 장비들이 곳곳에서 전시되어 3D 영상 산업에 대한 방송장비 업체들의 발빠른 행보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KOBA를 관람했다는 양선호 씨(광주대, 신방과)는 “3DTV를 직접 체험하는게 재미있기도 했지만, 3D 영화보다는 생동감이 덜하고 안경을 써야하는 불편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해야할 것 같다”며, “앞으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더욱 다양하게 준비된 전람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6월 16일. 장비업체 탐방

KOBA2010에 참가한 많은 장비업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각종 기기들을 선보임으로써, 눈 깜짝할 사이에 성큼성큼 진보하는 방송·음향·조명 분야의 현재를 반영했다.

기술의 발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방송장비 업계였다. ‘디지털’이라는 화두는 방송 시스템의 거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소니, 재인엠엔씨 등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파일 기반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선보였고, 티브이로직, 비주얼리서치, JVC 등은 각각 3D 콘텐츠 모니터링, 3D 그래픽 솔루션, 3D 통합 솔루션 등을 내놓기도 했다.



음향분야의 눈부신 기술발전도 주목할 만한데, 아마하, 동양디지털 등에서 내놓은 디지털 콘솔 제품들은 음향기술의 진보를 대변했다. 또한 저전력, 고휘도의 LED를 방송용 기기에 접목시킨 조명분야와 디지털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도 KOBIA2010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장비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는데, DTV 중계기 국산화에 성공한 답스, HD/SD-SDI Products System을 선보이는 네스테크놀로지, 고성능 DTV 수신안테나를 개발한 스펙트럼통신기술, 메모리 기반 비디오 서버를 내놓은 디투넷 등이 미래에 국산 방송장비 시대를 열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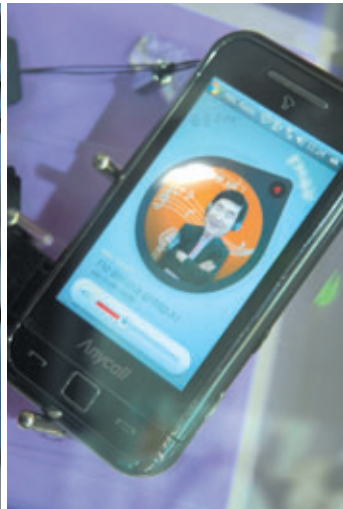
6월 17일. 컨퍼런스 마지막날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는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지식의 장이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과 함께 등장한 첨단 미디어들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는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뜨거운 이슈가 됐다.

16일 열린 '컬처 트렌드' 세션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봉연근 차장이 「대한민국 소비자의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 및 미디어 이용행태」라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 날 발표는 전국 41개 도시의 만 13~64세의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Media & Consumer Research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 봉연근 차장은 "인터넷 광고에 비해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주목도와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며, "이런 소비자의 취향과 반응은 차세대 방송 미디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열광하면서도, 기존의 지상파방송 또한 꾸준히 사랑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대한 사용빈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기존 매체와 대등한 수준의 중요성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3DTV 전송/디스플레이' 세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국진 선임연구원은 「3DTV 방송 송수신 방식 및 이슈」라는 발표를 통해 "2010년은 3DTV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올해를 기점으로 각 가전사와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수신기를 출시하고, 관련 표준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여러 3D 영화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올해를 3DTV 대중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밝혔다.





6월 17일. “내 손안의 세계, 모바일 돌풍”

3DTV와 더불어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방송계의 이슈로 ‘모바일 돌풍’을 빼놓을 수 없다. KOBA2010의 분위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람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모바일 서비스는 역시 ‘아이폰 앱’이었다. 작년 말에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스마트폰 돌풍의 주역이 되었고, 각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 업체들은 너도나도 아이폰용 앱을 제작해 KOBA2010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아이폰 앱과 더불어 최근 상용화를 시작한 DMB2.0 서비스도 KOBA2010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는데, 지상파DMB 6개 방송사를 비롯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서비스는 기존의 DMB 서비스에 별도의 웹 브라우저 없이도 구현가능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하여 DMB 시장의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특히, KBS는 개발 중인 무료 보편적 지상파 서비스 Korea-View의 모바일 수신기술을 전람회에 시연해서,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기술적 진보와 연구 결과들이 KOBA2010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다소 뒷전으로 밀려났던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도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및 정책 연구 현황을 소개했고, 국민전체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6월 17일 오후 5시. “성황리에 마무리된 컨퍼런스”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는 ‘컨버전스’, ‘방송정책’, ‘실감방송’, ‘콘텐츠’ 등 4가지의 주제로 20여개 세션, 80여개 강좌를 개설하는 등 관련 업체 및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마지막 날 많은 관심을 받은 강좌는 LG경제연구원의 서기만 연구위원이 발표한 「OTT 서비스 동향」이었는데, 서 위원은 발표를 통해 “OTT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수의 스크린을 통한 탈TV 서비스’가 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OT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PTV 및 P2P의 서비스와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외국의 경우, 콘텐츠 보유자, 검색포털, 단말기 제조업체 등이 경쟁적으로 OTT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며, “투자과 수익의 규모는 작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TV”라며, OTT 서비스와 타 서비스의 특징을 구분지었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은 컨퍼런스에서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6월 17일. “아직도 험난한 방송장비 고도화의 길”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 계획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송통신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패널토의를 열었다. 이 날 패널토의에서 발제를 맡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김대진 PD는 현재까지 진행된 방송 장비 고도화 사업의 결과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을 발표했고, MBC 기술관리부의 민동철 차장은 “성과와 안정성, A/S, 호환성 등이 국산 방송장비 구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송경희 전파방송관리 과장은 “이번 방송장비 고도화 정책이 그런 사항들을 해결시킬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서 표준제정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SBS 오건식 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단기적이거나 방송사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까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서중수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일반기업에서 오래 진행하기 힘든 방송장비 관련 연구는 정부와 방송사가 주도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다른 참가자들 또한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미래방송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패널토의에는 양병내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장, 송경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 강수길 KBS 팀장, 성보영 MBC 부국장, 오건식 SBS 연구소장, 남명희 K2E 사장, 이경국 TVLogic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6월 18일. 숨 가쁜 나흘간.

‘Culture of Media, Future of Broadcast’ 라는 주제로 열린 제20회 국제 방송·음향·조명 기기 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3DTV와 Mobile TV 기술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는데, 이는 곧 ‘고화질 영상’과 ‘모바일 서비스’가 방송의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많은 방송기술인들이 주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3일간 진행된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는 예년에 비해 무척 알차게 준비돼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만족스러움을 안겼으며, ‘방송주파수 정책’ 및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에 관한 토론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큰 의미를 남겼다.